

무등기 품을자 누구? 추격·역전... 윤곽 드러나는 4강

■ 광주일보 주최 제 3회 무등기 사회인 야구대회 3라운드

22점 난타전... 터틀스, 나이너스 꺾고 준결승 티켓

무등기 우승을 향한 아마 야구인들의 도전이 추석 연휴 피날레를 장식했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 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3라운드가 22일 동성고 야구장과 무등중학교 야구장에서 열렸다. 천왕·지왕·호남리그 8강전 5경기가 치러졌다.

호남리그의 '디펜딩 챔피언' 화순 에슬레틱스가 앞선 라운드에서 4강 진출을 확정지은 가운데 장성우리필프, 터틀스, 버팔로스가 호남리그 남은 준결승 티켓을 따냈다.

장성우리필프는 영광프리웍스와 경기에서 5회 4점을 만들어내는 타선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7-4로 역전승을 거뒀다.

터틀스와 나이너스는 22점을 주고받는 공방전을 펼치며 그라운드를 달궜다. 터틀스는 박현과 이가람의 홈런포를 앞세워 12-10으로 신승을 거뒀다.

호남리그 준결승전 마지막 한 자리는 버팔로스가 차지했다. 1·2회 4점을 만든 버팔로스는 7회 자이언츠의 추격을 따돌리며 4-3으로 이겼다.

천왕리그에서는 금호 허리케인이 화끈한 타력을 앞세워 패밀리를 10-1, 5회 풀드로 꺾었다. 1회부터 4점을 만든 허리케인은 3회 대거 5득점에 성공하면서 가볍게 승리를 챙겼다.

지왕리그에서는 판 13이 승자가 됐다. 판 13은 전통의 강호 백구 클럽을 상대로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하면서 6-3으로 이겼다. 백구클럽은 0-6으로 뒤진 6회 첫 득점에 성공한 뒤 7회 역전극을 노렸지만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승리투수가 된 판 13의 최홍준은 4회 솔로포까지 쏘아올리며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3주차 경기 결과
 ◆천왕리그 8강전(장소:동성고 야구장)

패밀리 00010-1
 허리케인 4150 X-10 (5회 풀드)
 △승리투수 : 이정현

◆지왕리그 8강전(장소:동성고 야구장)

백구클럽 0000012-3
 판 13 101130 X-6
 △승리투수 : 최홍준
 △홀런 : 최홍준(4회 1점·판 13)

◆호남리그 8강전(장소:무등중학교 야구장)

영광프리웍스 0100201-4
 장성우리필프 000142 X-7
 △승리투수 : 김병희

터틀스 4301202-12
 나이너스 1020331-10
 △승리투수 : 김동원
 △홀런 : 박현(4회 1점)·이가람(5회 2점·그라운드 홈런·이상 터틀스)

자이언츠 0010002-3
 버팔로스 130000 X-4
 △승리투수 : 정현재



22일 무등중학교에서 열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호남리그 8강전 프리웍스와 우리필프의 경기에서 우리필프의 박상선이 임진강의 타석 때 3루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KIA 추락, 프로야구 700만 관중몰이 실패

3년연속 600만 관중 돌파

프로야구가 3년 연속 6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지난 21일 잠실·대천·목동에서 열린 3경기에 4만2738명이 찾으면서 532경기 만에 프로야구 누적 관중이 602만82명(경기당 평균 1만1316명)을 넘어섰다. 지난 2011년 이후 3년 연속 600만 관중이다.

3년 연속 600만에 성공했지만 '전국구 구단' KIA와 롯데의 부진 여파로 2년 연속 700만 관중 목표는 이루지 못하게 됐다.

600만 관중의 1등 공신은 11년 만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눈앞에 둔 LG다. LG는

홈 58경기에 115만6509명(평균 1만9940명)을 불러들이며 지난해 대비 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4년 연속 홈 100만 관중 돌파에 성공한 LG는 구단 최다 기록인 126만4762명(평균 2만76명·1995년) 경신도 노리고 있다.

잠실 라이벌인 두산도 21일까지 홈 61경기에 110만4642명(평균 1만8109명)의 누적 관중을 기록하면서 LG의 뒤를 잇고 있다.

전반기에 구름 관중을 몰고 다녔던 KIA는 푹 떨어진 성적과 함께 관중 수도 급감했다. 지난 19일 올 시즌 최소인 1910명이 경기장을 찾은 등 57경기 누적 관중은 44만6580명(평균 7835명)이다. 지난해 45만2250명에 비해 1% 감소했다. 신

생팀 NC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NC의 홈 58경기에 47만9807명이 찾으면서 첫 해 평균 관중은 8273명을 기록하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 삼성은 선두권 질주에도 불구하고 관중이 16% 줄었다. 62경기에 찾은 관중은 43만6130명(7034명)으로 지난해 51만6418명(8329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4강에서 떨어진 롯데는 41%의 감소세를 보이며 올 시즌 흥행 참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사직 58경기에 123만2367명이 들어섰지만 올 시즌에는 73만1707명이 찾는데 그쳤다. 평균 관중도 2만1248명에서 1만2616명으로 푹 떨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PS 3선발?... 25일 SF전 14승 조준

다저스 NL 서부지구 우승 확정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류현진이 25일 오전 11시15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원정 3연전 첫 경기에서 시즌 14승에 도전한다.

이 경기 등판으로 류현진은 포스트시즌에 대비한 선발 투수 운영에서 팀의 3번째 선발 자리를 꿰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평소대로라면 5일을 쉬고 23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 등판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돈 매팅리 감독은 에이스인 클레이턴 쿠소가 등판할 예정이던 19일 경기에서 스티브 파이프의 등판시키며 선발 투수 일정이 하루씩 밀렸다.

밀린 일정에 따라 류현진은 팀의 고정 1·2 선발인 쿠소(22일), 잭 그레인키(23일)의 다음 순서로 등판한다. 24일은 다저스의 휴식일이다.

매팅리 감독이 선발 등판 순서를 조정하는 것은 다음달 4일 시작되는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의 준비를 위해서다. 현재 7경기를 남겨둔 다저스는 포스트시즌 1·2차전에 팀의 1·2선발을 올릴 수 있도록 컨디션을 관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리그 막판 경기에 쿠소·그레인키에 이어 류현진이 등판한다는 것은 류현진이 팀 내 3선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류현진은 17일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시즌 14승을 올리는 못했으나 8이닝을 책임지는 동안 안타를 단 2개만 내며 매팅리 감독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류현진이 샌프란시스코와 대결하는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선 4경기에서 1승2패, 평균자책점 2.81을 기록했다. 4월3일 류현진의 빅리그 데뷔전 상대도 샌프란시스코였다.

지난 20일 애리조나 원정에서 7-6으로 승리한 류현진은 4년 만에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확정지으며 올 시즌 가장 먼저 포스트시즌 진출 티켓을 확보했다.

1969년 디비전시리즈 체제가 자리 잡은 뒤 다저스가 지구 우승을 차지한 것은 통산 12번째다. 다저스는 2009년 지구 우승컵을



LAD다저스 류현진이 지난 20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방문경기에서 7-6으로 승리하며 올 시즌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하자 삼매인을 티드리며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들어올렸으나 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에 저 월드시리즈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다저스는 시즌 초 라미레스와 맷 캠프 등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31승 42패를 기록하며 지구 꼴찌에 머물렀지만 6월 23일 샌디에이고를 6-1로 꺾으며 상승세에 불씨가 트였다.

원정 15연승을 달리며 구단 신기록을 세웠고, 1942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이후 71년 만에 48경기에서 40승을 올리는 등 새 역사를 썼다. /연합뉴스

광주FC, 충주 험멜 상대 연패 탈출 시도

코칭스태프 인선 마무리... 오늘 밤 원정 경기

광주가 최하위 충주를 상대로 연패 탈출을 노린다.

광주 FC가 23일 오후 7시 충주 종합경기장에서 충주 험멜을 상대로 K리그 챌린지 25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후반기 다코호스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광주(9승5무10패·승점 32)는 최근 2연패를 당하며 6위로 내려앉았다.

경찰축구단(16승4무4패·승점 52)의 거침없는 기세로 1위는 불가능한 목표가 됐지만 3위는 지켜야 한다. 3위 안양의 승점은 33(9승6무10패). 3~6위까지 메라운드 자리가 바뀌는 대접전이다.

시즌 도중 사령탑 교체가 있었던 광주는 최근 코칭스태프 인선을 마무리 했다. 전천후 수비수인 배태량 마철준을 플레잉 코치로 전환시켜 팀의 구심점 역할을 맡겼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브라질 출신의 카를로스 전문 피지컬 코치도 영입했다.

다.

새로 꾸려진 남기일 감독 대행 체제를 안정화한 광주는 남은 일정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생각이다.

광주는 안양과의 24라운드 홈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진 못했지만 앞선 고양전 1-5 참패의 충격을 잊게 한 승부를 펼쳤다.

초반부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빠른 플레이를 펼쳤다. 여름의 프로 데뷔골이 터진 이날 광주는 선제골 이후에도 공세를 이어가며 상대 골문을 겨냥했다.

빠른 전개로 흥미롭게 경기를 풀었지만 골 결정력과 수비 집중력은 여전히 고만이다. 광주는 불붙었던 공격이 주춤하면서 4경기 연속 1득점에 머물고 있다. 어렵게 골을 넣는데 반해 실점은 쉽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원정 4경기에서 13실점을 내

주며 수비 집중력 고문에 빠져있다.

충주가 3승4무17패(승점 13)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광주에게는 쉽지가 않은 팀이다.

올 시즌 상대전적은 1승1무1패. 첫 만남에서 0-1로 패했던 광주는 두 번째 대결에서도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세 번째 대결 끝에 2-0 승리를 거두며 승점 3을 더했다.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내세운 충주는 중원과 측면 자원의 기술과 스피드로 상대를 괴롭히는 팀이다. 세트피스도 매서운 편이다. 그러나 세밀함이 떨어지면서 경기 분위기를 주도하고도 번번이 패배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1무8패로 최근 9경기 연속 무승에 빠져있다.

마음 급한 충주와의 승부는 선제골에서 갈릴 전망이다. 재정비를 끝낸 광주가 시원한 공세를 펼치며 연패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